

곤충, 아는만큼 보이고 보이는만큼 신비롭다

곤충학 강의
정부희 지음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보자. 지구상에 사는 동물이 몇 종류나 있을까? 약 150만 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곤충은 어느 정도나 될까? 약 100만 종을 차지한다. 다른 동물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곤충의 생김새나 생태에 대해 아는 이는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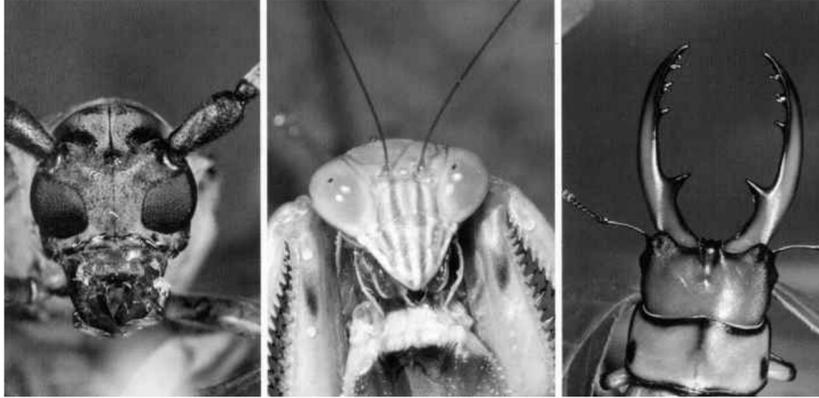
곤충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지고 '곤충 사랑 풀뿌리 운동'에 힘을 보태는 이가 있다. 바로 정부희 박사다. '한국의 파브르'라고도 불리는 정 박사는 우리곤충연구소를 열어 곤충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곤충에 관한 논문만도 60여 편이 넘는다.

정 박사가 펴낸 '정부희 곤충학 강의'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탄생과 진화, 생김새와 생태 양상에 이르기까지 연구 결과와 풍부한 사진 자료가 담겨 있다.

대학 전공자도 원서나 번역서로 공부하는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곤충에 접근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그에게 '곤충이 어렵다'는 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다가왔다.

곤충은 크게 머리, 가슴, 배로 구성돼 있다. 머리와 가슴, 가슴과 배 사이가 "부드러운 연결막으로 이어져 있어 몸이 유연"한 게 특징이다. 저자는 이를 '세 칸짜리 기차'로 표현한다.

곤충에 대한 기본 지식 가운데 불완전변태, 완전변태가 있다. 전자가 알-애벌레-어른벌레 단계를 거치는 반면 후자는 알-애벌레-번데기-어른벌레 단계를 거친다. 이처럼 곤충은 한꺼번에 자라지 않고 여러 단계를



곤충의 종류와 생태는 알면 알수록 흥미롭다. 뽕나무하늘소, 사마귀, 두점박이사슴벌레(왼쪽부터). <보리 제공>

거치며 성장한다. 저자는 곤충 몸의 구조와 기능도 자세하게 설명한다. 알테면 이런 것이다. 머리에 붙은 더듬이 구조는 여러 마디가 실에 구슬이 꿰어진 것처럼 연결돼 있고, 더듬이 쓰임새는 냄새 맡는 감각기관이다. 또한 더듬이 생김새는 뿔니 모양, 실모양, 야구 장갑과 같은 모양이 있다.

곤충의 산란법도 흥미롭다. 산란관 구조가 없는 곤충들은 알을 표면에 떨어뜨리거나 붙여 낳는다. 배짱무늬가 긴 곤충들은 표면 틈바구니에 살짝 끼워 낳는다. 대벌레들은 죽은 식물이 있는 곳에 투하하듯 툭툭 알을 떨어뜨린다. 산란관이 발달한 매뚜기류는 땅 속에 알을 낳는다고 한다.

또한 짝짓기를 마친 암컷과 그렇지 않은 암컷은 행동과 생리에 차이가 있다. 짝짓기를 한 암컷은 더 이상 수

컷을 불러들이는 페르몬을 만들지 않는데, 다른 수컷이 와도 무관심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저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 현장에서 곤충을 관찰하며 느꼈던 내용을 풀어낸다.

"무당벌레를 건드리면 다리의 관절에서 노란색의 액이 방울방울 흘러나옵니다. 무당벌레는 위험에 맞닥뜨리면 종합적으로 여러 방어행동을 합니다. 몸 색깔은 경계색을 띠고 있고 건드리면 죽는 듯이 다리 여섯 개와 더듬이를 배 쪽으로 오그려 붙이고 뒤집어집니다."

다른 무엇보다 책의 미덕은 풍부한 사진 자료다. 이론을 뒷받침하는 생태 사진은 곤충에 대한 상식이나 정보를 확장한다. 저자는 말한다. "우리 이웃인 곤충이 생태계에서 해내는 한없는 역할 덕분에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견제한다"고.

<보리>3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우리가 사는 방식=미국의 소설가 시그리드 누네즈가 2011년에 쓴 책으로,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 수전 손택에 관한 회고이다. 누네즈는 이 책에서 자기 삶에 지표가 되어주었던 한 비범한 인간의 삶의 방식들을 솔직하게 그려내며 여전히 울림이 있는 손택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지금은 사라진 사람과 시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움과 슬픔을 담았다. <코문북스>1만4000원

▲마음의 상처로 죽을 수도 있을까=오스트레일리아의 심장외과 의사 니키 스탬프는 자신이 겪은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장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심장 수술을 받기 전 병동에서 결혼식을 올린 연인, 수영 대회 결승전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수영 선수, 그리고 니키 자신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한다. <해나무>1만6000원

▲무한한 밤 홀로 미러볼 켜네=서윤후 시인의 네 번째 시집이다. 2009년 등단 이후 많은 주목을 받으며 시뿐만 아니라 에세이, 그림시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온 시인이 그동안의 주목에 값할 만큼 젊고도 원숙한 단면을 펼쳐 보인다. 저자는 슬픔이라는 감정과 우리의 관계를 곱씹히 들여다보며 슬픔을 이해하는 법을, 그리고 슬픔으로부터 성숙하게 멀어지는 길을 보여준다. <문학동네>1만원



▲85년생 요즘 아빠=1985년생인 저자 최현욱은 결혼 10년 차 두 아이의 아버지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다. 그는 요즘 아빠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헤아리고, 아빠 육아의 필요성을 일깨우면서 부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육아의 방법을 모색한다. 또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지, 아빠로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소울하우스>1만4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흙을 한 번도 쳐 보지 못한 나에게=흙을 꿈꾸는 야구 소년 루이의 이야기다. 초등학교생 루이는 역전 홈런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섰지만 공을 맞추기는 하나 병살타가 되고 만다. 실망한 루이는 고교 야구선수 센 형의 말대로 언젠간 홈런을 치기 위해 안타부터 연습하기로 마음 먹는다. 저자 하세가와 슈헤이는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흙의 비밀은 '끈기'에 있다는 점을 전한다. <내인생의책>1만원

▲학교 잘 다니는 법=어린이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자신만만 생활책' 시리즈 마지막 책이다.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기규 작가는 학교에서 만나면서 실제로 들

려주고 싶었던 조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렸다. 주인공 지민이를 내세워 지각을 하거나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급식이 맛이 없을 때 등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한다. <사계절>1만5000원

▲빵집 새끼 고양이=2022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 한국 후보 이상교 작가의 신작이다. 원래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던 주인공 승온이가 어쩌다 한 식구가 된 새끼 고양이와 밀고 당기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처음엔 서먹서먹하던 승온이와 고양이가 서로를 이해하며 다가가는 과정이 섬세하게 담겼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키우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추천한다. <산하>1만2000원

구석기부터 현대까지...세계사와 함께 읽어 더 흥미로운 미술사

연표로 보는 서양 미술사

김영숙 지음



예술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이다. 예민한 촉수를 가진 그들은 사회에 반응하며 작품을 생산해낸다. 화가와 조각가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림과 조각을 감상하는 건 작품을 둘러싼 사회적, 역사적 환경에 주목하며 그 배경을 알아가고 그 시대의 취향을 읽는 것일 수 있다. '미술은 시대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예술사 365', '미술관에서 읽는 서양미술사', '피렌체 예술산책' 등 미술 관련 책을 20여권 집필한 김영숙의 책 '연표로 보는 서양 미술사'는 미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책이다.

세계사의 주요 사건과 함께 읽어 더 흥미로운 책은 기

원전 4000~3500년경 작품으로 추정되는, 다산을 기원하는 여인 조각상 '홀레 펠스의 비너스'에서 시작해 1948년 제작된 잭슨 폴록의 작품 '넘버 5'까지 모두 100여점을 제작 연도순으로 소개한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그 중에서도 굵직한 세계사의 흐름과 함께 역사적 맥락을 알아가며 작품을 감상하다보면 미술사의 흐름이 좀 더 손에 잡힌다.

첫 작품으로 소개하는 '홀레 펠스의 비너스'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인체 누드 조각상'이다. 여성 누드를 보면 '비너스'라 부르던 낡은 습관에 따라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작품은 구석기 시대 크로마뇽인의 출현하던 시기와 맞물려 제작된 작품이다.

또 하나의 비너스인 '밀로의 비너스'는 기원전 130~100년경의 작품이다. 에게해 밀로스섬 비너스 신전 근처에서 한 농부가 밭일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조각은 프랑스 할대에 넘겨졌고, 팔이 잘려 나간 여신상의 모습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소녀의 모습을 한 요하네스 페

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의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며 인상파의 등장을 알린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 스냅사진처럼 포착한 일상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에드가르 드가의 '업생'도 만날 수 있다.

또 서양미술사를 오랫동안 지배해오던 원근법의 파괴한 폴 세잔의 '바구니가 있는 정물', 강렬한 원색의 사용과 형태를 파괴한 야수파의 선구자 마티스의 '마티스 부인의 초상' 등의 작품을 통해 미술사의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책은 그밖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고흐의 '까미유가 나는 밀밭', 몬드리안의 '빨강 노랑 파랑이 있는 구성 II' 등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대표작을 소개한다.

작품 사이에는 르네상스의 후원자 메디치 가문의 가계도나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 7년전쟁, 프랑스 대혁명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연표로 보충해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암사>1만9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